

도쿄에서 체험해보는 한국 설 명절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에서는 설 명절 당일인 2월 10일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떡국 시식, 차례상 재현, 전통놀이 체험, 매듭공예, 배씨댕기 만들기 등 한국 설을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문화원은 매년 설 시기에 맞춰 한국 설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문화원까지 직접 올 수 없는 지방 거주자를 위해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떡국 밀키트 세트를 보내주는 온라인 행사와 함께 △사전신청제로 진행한 강좌형 집중체험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대면 행사 등 참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선보였다.

현재 문화원에서 전시중인 특별기획전 '임인진연도병 속 조선왕실의 춤과 음악'과 연계하여 갤러리에서 전통악기콘서트를 실시하고, 도서영상자료실에는 설날 관련 도서를 전시하였다.

한옥 사랑방에는 차례상을 재현하여 차례상에 담긴 뜻과 한국인이 설날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드라마에서 보던 차례상을 실제로 보게 되니 너무 재미있고 마치 드라마 속에 들어온 것 같다.'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야외 하늘정원에서는 비석치기, 투호, 제기차기, 공기놀이 등 한국의 전통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환성으로 흥겨운 설날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좌형 체험 행사에서는 △매듭공예 △한복천을 이용한 한복액자 만들기 △한글 도장 만들기 △설날 그림책 테라피 및 한복 브로치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경험했으며 특히 한국 매듭 및 한글 손도장 만들기 같이 평소 체험하기 어려운 강좌는 정원의 10 배에 달하는 500명 이상의 응모가 몰려 높은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떡국시식과 온라인 떡국 만들기행사에도 각기 550명 이상의 응모가 몰렸다.

공형식 원장은 "설날 행사는 가족동반이 많아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하는 행사다. 어린아이들도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참가자들이 너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에 설 명절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 및 생활문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행사 전경